

2019 드라마 명대사 베스트5

열정과 희망이라는 단어에서 차츰 멀어져가는 것만 같은 세대. 그래도 머릿속을 번뜩이게 하는 한 마디가 있다. 2020년을 맞이하기 전, 2019년 드라마가 남긴 위안의 명대사가 그렇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부터 받고 오세요.” (SBS ‘열혈사제’·김남길)

성당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을 향해, 잘못을 했다면 일단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 무엇이든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용기를 내 진심을 담아보자.

●“서로의 학대로 위로를 받네. 이 도시는.”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임수정)

새벽 1시 퇴근길에 도심 불빛들을 보며, “나만 치열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는다. 2020년에는 조금 더 힘들을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며.

●“나 보기에 행복하면 됐죠.” (KBS 2TV ‘동백꽃 필 무렵’·공효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달으려고 애들바등 해봤자 “답이 없는” 세상. “남들 보기에 어떻든” 한 번쯤은 내 기준에 만족하며 살아보자.

●“나는 사랑에 빠졌습시다.” (MBC ‘봄밤’·정해인)

연인 정인(한지민)에게 책을 읽어주며, “사랑에 빠졌다면 그냥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2020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나도 엄마 있어.”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김해숙)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가 딸에게, 억척스럽게 자신을 챙기는 엄마, 그도 누군가의 딸인 것이다. 지금 곁에 없기에 더 애절한 존재,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명품연기는 기본... ‘시청률과 임팩트’ 변수

‘동백꽃’ 공효진 vs ‘세제예’ 김해숙
KBS ‘로코퀸’ 귀환 or 내공의 ‘엄마’
‘검법남녀2’ 정재영 vs ‘봄밤’ 한지민
MBC 첫 시즌제 or 첫 밤9시 드라마
‘VIP’ 장나라 vs ‘열혈사제’ 김남길
SBS 연속흥행 배우 or 화제성 배우

2019년 안방극장의 ‘시청률 제왕’은 누구일까.

지상파 방송 3사는 올해 다양한 드라마 장르와 포맷에 도전해 그 가능성을 엿보는 한 해를 보냈다. KBS와 SBS는 각각 ‘동백꽃 필 무렵’과 ‘황후의 품격’ ‘열혈사제’ 등으로 시청률 15%의 벽을 뚫었다. MBC는 밤 9시대 드라마를 선보이며 ‘검법남녀2’로 시즌제 드라마의 문을 열었다. 저마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각 방송사의 2019년 연기대상 수상자에도 시선이 쏠린다. MBC는 30일, KBS와 SBS는 각각 31일 연기대상 시상식을 연다.

각 방송사의 유력한 대상 후보들은 ‘2강(強) 대결’ 구도로 압축된다.

●KBS... ‘로코퀸’ 공효진 VS ‘내공’ 김해숙

KBS의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는 ‘엄마’가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배우 공효진과 김해숙이 강력한 대상 후보로 떠오르면서다.

공효진은 11월21일 종영한 ‘동백꽃 필 무렵’으로 남다른 파급력을 자랑했다. 23.8%(이하 닐슨코리아·최고시청률)로 올해 지상파 방송 미니시리즈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아들을 홀로 키우는 미혼모 동백을 사랑스럽게 표현해 박수를 받았다. 음식 역의 강하늘과 순수한 사랑을 그리면서 ‘로코퀸의 귀환’이란 평가도 얻었다.

김해숙은 9월22일 막을 내린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세제예)로 ‘국민엄마’의 명성을 공고히 했다. 딸을 위해 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내 시청자의 눈시울을 붉혔다. 35.9%의 시청률로 KBS 주말극의 힘을 또 다시 과시했다. 김해숙이 대상을 탄다면 1974년 데뷔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대상을 수상하게 된다.



KBS ‘동백꽃’ 공효진(왼쪽)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김해숙



MBC ‘검법남녀 시즌2’ 정재영(왼쪽)과 ‘봄밤’ 한지민



SBS ‘VIP’ 장나라(왼쪽)와 ‘열혈사제’ 김남길



●MBC... ‘시즌제’ 정재영 VS ‘밤 9시대 시작’ 한지민

배우 정재영과 한지민은 올해 MBC 드라마의 다양한 도전을 이끌어 일찌감치 대상 후보로 지목됐다.

정재영은 올해 7월29일 ‘검법남녀2’를 9.9%로 마쳐 작년 시즌1에 이은 성공을 맛봤다. 오로지 부검 결과만 믿는 법의학자 백범을 통해 장르물의 매력을 제대로 살렸다는 호평을 얻었다. 1·2편을 함께 한 정유미, 오만석과 함께 지상파 방송 드라마 최초의 시즌3을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지민은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봄밤’으로 ‘밤 9시대 드라마’의 첫 주자로 나섰다. MBC는 올해 드라마 방영시간대를 기존보다 1시간 앞당겼다. 실험적인 편성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9.5%의 시청률을 넘겨 저력을 입증했다. 한지민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 정해인과 사랑하면서 겪는 고민과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SBS... ‘시청률 연타’ 장나라 VS ‘화제성’ 김남길

후보는 배우 장나라와 김남길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장나라는 작년 11월 시작해 올해 2월 종영한 ‘황후의 품격’과 이달 24일 막을 내린 ‘VIP’로 올해 SBS 드라마의 문을 열고 닫았다. 각각 17.9%와 15.9%를 넘겼다. 특히 두 드라마의 ‘원톱’ 주연으로 나서 시청자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황후의 품격’에선 대한제국 황실을 무너뜨리는 황후로, ‘VIP’에서는 남편의 내연녀를 찾는 백화점 VIP팀 차장 역을 맡았다. 각각 ‘막장’ 복수극과 불륜의 이야기로 소화하기 쉽지 않은 소재였음에도 힘 있는 연기로 드라마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김남길은 4월 끝낸 SBS 첫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로 돌풍을 일으켰다. 시청률은 22%까지 치솟았고, TV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도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극중 부패한 권력을 깨부수는 다혈질 신부 역을 연기하며 사제복 차림의 발차기로 코믹함과 통쾌함을 동시에 안겨줬다. 각각 형사와 검사로 나온 김성근, 이하늬와 찰떡궁합도 재미를 높였다. SBS는 ‘열혈사제’의 인기로 시즌제 가능성도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아침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겨울철 동계용 기모바지

정장·레저·일상복으로 일석삼조 **바지 3종 모두 49,800원**



기능성·스타일·활용성 모두 겸비한 동계용 베스트셀러 아이템!

아침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바지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겠는가? 출퇴근시에는 정장스타일로 아웃도어 활동시에도 좋은 멀티아웃도어 크로스오버 바지는, 기능성원단 기모안감을 적용하여 땀은 흡수후 빠르게 건조시키고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스판 소재로 겨울철 정장용·레저용·일상복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일반 바지보다 활용성이 뛰어나다. 허리부분에 주름밴딩 장착으로 숨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는 멀티아웃도어 바지는 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어 등산·낚시·골프 등 야외스포츠 및 정장스타일로 안성맞춤인 바지이다.

사이즈 30, 32, 34, 36, 38, 40
동계용 기모바지 3종 특별가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쇼핑몰 : www.style49.com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동계용 기모 반목 폴라 티 & 기모 집업티로 따뜻한 겨울 예약 완료!

후끈후끈 반목티 2장, 집업티 2장 **총4장 모두 39,800원**



보온성·방풍성·실용성·패션성을 겸비한 반목 폴라 기모 티셔츠와 집업 기모 티셔츠는 겨울철 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기모 안감 기술을 입힌 겨울용 티셔츠는 겨울철 일상생활이나 등산·낚시·골프·사이클·스포츠 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난로를 품고 다니는 듯 한 놀라운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일상복 및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겨울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사이즈 95, 100, 105, 110
겨울용티셔츠 4장 세트 **₩208,000 → ₩3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입금계좌 :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 이선희센스포츠
전국주문전화 : 1588-4930